

완벽한 바나바

교육의향



김명희
아동문학가

“제 아이가 학교를 자퇴 하려고 하는 데 이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고등학생을 둔 엄마의 말이다.
 어떻게든 고등학교는 졸업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퇴한다는 말에 나는 학생의 권리를 저버리려는 사고를 이해할 수 없어 했다. “아는데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 까. 학교 가면 수업을 듣지 않고 잠만 자요. 그것이 하루 이틀이지 아무 의미 없이 학교 다니는 본인도 생지육인 거죠.”
 어렸을 적에는 공부를 곧잘 해 반장도 하고 그랬는데 고학년이 되면서 점점 공부하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지고 떨어지다 보니까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소외당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학교와 멀어지게 됐다는 엄마의 말이 덧붙여졌다. 지금은 우울증약까지 복용하고 있다.
 ‘완벽한 바나바’라는 데빈 펜의 그림책이 있다. 바나바는 실험실에서 완벽한 반려동물로 태어나야 할 운명을 가졌다. 그러나, 바나바는 완벽하지 않았다. 반은 생쥐를 닮고 반은 꼬기리를 닮은 반려동물이다. 한마디로 실패작으로 좁은 유리병 속에서 지내야 했다. 바나바는 가끔 바깥세상이 궁금했다. 바퀴벌레 종알이가 얘기해 주는 것이 전부였다. 은빛 물결이 반짝이는 호수와 푸르른 나무, 하늘까지 뻗어 있는 산과 빛나는 별에 관해 얘기해 줬다. 언젠가는 풀밭에 앉아 별을 보고 싶다는 꿈을 꾸었지만 종알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나바는 불가능이란 없다고 말한다. 다음날

실패작들은 재활용이 돼 다시 태어날 거라고 연두고무가 말한다. 바나바를 사람들이 실패작이라고 말했지만 자기 모습 그대로를 좋아했다. 재활용이 돼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좁은 유리병을 이리저리 부딪치고 해 마침내 유리병을 깨고 자유의 몸이 됐다. 바나바는 옆에 실패작인 친구들을 꺼내어 한 명씩 서로 도와 선반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 바닥으로 내려온 바나바 일행은 탈출에 성공한다. 하지만 바깥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은 곳이다. 바나바는 친구들과 앞으로의 바깥 생활을 좌충우돌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완벽함을 추구했다.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완벽을 위해 어렸을 적부터 강행군시킨다. 학교 공부도 힘들 텐데 학교가 파하면 학원을 서너 개는 거쳐야 한다. 집으로 올 때쯤이면 모두 파김치가 된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독후감을 쓰게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다닐 때 책을 읽지 않으면 앞으로 중학교 들어가면 더 못 읽을 텐데 틈내서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자고 해도 잘 실천이 되지 않는다. 한 번은 학원에서 수학 모의고사를 쳤는데 다 찍어 제출했더니 학원 선생님이 전화로 알려줬다.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수학 문제 푸는 것이 쉽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모르는 문제일 경우 푸는 것이 얼마나 고역이겠는가. 나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잘 못되었다고 아이에게 꾸중하고 벌을 준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 같았다. 담부터 그러지 않기로 하고 끝냈다.
 이처럼 하기 싫을 때가 있으면 하고 싶을 때도 생길 것이다. 세상은 보는 견해에 따라 달리 느껴지기 마련이니까.
 피사의 사탑도 한쪽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기울어 보이지만 반대쪽에서 보면

왼쪽으로 기울어 보인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는가. 이것이 싫으면 저것을 하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듯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한다.
 지금 아파하는 아이가 있다면 바나바 처럼 스스로 깨우침을 통해 그 좁은 유리병 속에서 탈출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이송우화에 나오는 ‘소와 굴대’ 이야기에 찌는 듯한 여름날 소 한 머리가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수레의 굴대에서 짹짹하고 커다랗게 소리를 냈다.
 “이봐, 굴대야,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것은 나인데 너는 왜 쓸데없이 커다란 소리로 울고만 있느냐?”고 말했다.
 어쩌면 세상을 끌고 가는 존재로서 소나 굴대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굴대는 굴대로 소는 소대로, 바퀴는 바퀴대로 하는 일이 다 있어서 무거운 짐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다. 그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제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힘센 소도 아무리 큰 바퀴도 튼튼한 굴대라 해도 짐을 옮기는 일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소가 할 일, 바퀴가 할 일, 굴대가 할 일이 각각 있어서 이 사회의 구성요소로서 조화를 이루는 인자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모두 스스로 바나바처럼 유리병을 깨고 실패작 친구들을 다 끌고 나와야 할 일이다. 학교이든 가정이든 한술밥을 먹는다는 공동체에서 사는 우리는 구심작용을 매우 중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나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 건강하게 성장하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느끼는 하루가 되길.

社說

모두가 불행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30일 72만명... 사이트 마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7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다고 한다. 국회 청원 관련 사이트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우리 사회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지켜보며 혼돈의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 7년여 만에 다시 찾아온 ‘혼돈의 정국’이 안타까운 일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오후 5시, 72만여 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도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대기 인원이 5000명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달 23일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이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현재 국민동의 청원제도에 따르면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율은 4·10 총선 이후 3개월 가까이 20%대 중·후반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지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현 정국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을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정치적 안정성과 국제적 영향력을 떨어뜨려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도전이 늘어나면서 정국에 긴장과 갈등을 불러오는 것도 문제다. 당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달 27일 ‘2017년 어게인’이라는 말로 여권의 위기감을 강조했다.
 청원원은 게시글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고 했다. 이례서는 안정적인 정국을 이끌 수 없다. 대통령이 변화의 의지를 갖고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내·외에서 불거지는 다양한 도전에 안정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일상 된 기상이변, 경각심 갖고 대처해야

장마 초입부터 폭우 등 피해

장마 초입부터 강풍과 폭우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장마가 정체현상을 보이면서 지난 주말 광주·전남에도 크고 작은 피해 신고와 교통통제가 잇따랐다. 다행히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이 넘어갔지만 이제 시작된 장맛비에 대한 민·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때다.
 30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과 전남 22개 시군(여수 거문도·초도 제외)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가 이날 13시를 기해 해제됐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구례 205mm, 진도 193.5mm, 영암 183.5mm에 이른다. 전남과 인접한 서해 전 해상·남해서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연일 비가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시도와 소방당국에 접수된 호우 피해 관련 출동 신고는 광주 14건, 전남 38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빗길 교통사고도 연이어 발생했다. 올해는 폭우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한다.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해수면 고온 현상 때문이다. 기상청도 다음 주부터 전국에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최장 1주일 가량 꾸준히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8월 이후, 태풍이 예년보다 50% 이상 더 발생하고, 태풍의 이동 경로가 한반도 쪽으로 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측이나 대응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하고 강도 또한 강해지는 상황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장마는 이제 시작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각심을 갖고 재난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은 이제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자연 재난이다. 특히 장마와 폭우에 대비해 산사태와 하천 범람, 주택 침수 등에 주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예방과 대비는 기후위기 시대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안전을 위한 시민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ji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inilbo.com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서석대



지난해 7월18일 충북 청주 오송읍 공평2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잠겨 14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인근 미호교 확장공사 현장에서 임시 제방이 무너져 물이 쏟아져 내려온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지난 주말부터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한반도 전역이 장마 영향권에 접어들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은 지난해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마 시작과 함께 또 다시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대형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폭우, 폭염, 가뭄 등 기상이변이 늘면서 자연재해의 규모와 피해 양상도 달라지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비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행정당국의 노력과 함께 비상상황에 대비한 개인의 철저한 대비로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장마철 가장 큰 위험요인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다. 지난 2022년 서울에서 침수되는 반지하 주택에서 빠져 나오지 못해 사망자가 발생한 후진국적인 사고가 되풀이 돼선 안 된다. 반지하 주택을 비롯해 지하차도, 하천변 등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점검하고, 방재시설 정

비와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 대비도 중요해졌다. 전남도는 지난 2월부터 산사태 취약지역 2281개소를 포함한 산사태 피해 우려지 3827곳을 점검했다. 도는 10월15일까지 산사태 상황실을 설치해 취약지역 사전예찰, 집중호우·태풍 발생 시 상황 전파에 주력하기로 했다. 산사태 우려지역 주민들도 선제적인 대피를 위해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신속한 대피 경로를 확보해 차량 운전자의 경우 비 오는 날 감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에 신경 써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빗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7.9명으로 일반도로(1.9명)보다 4배 이상 높았다. 노면이 젖어 있거나 폭우 시 제한 속도의 20~50%까지 감속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충분히 확보해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반갑지 않은 장마가 찾아왔다. 장마철에는 항상 주변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과 정부의 철저한 대비로 올 장마가 부디 큰 피해없이 지나가길 소망한다. **박성원 편집국장**

全南日報	사창·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www.jinilbo.com m.jinilbo.com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inilbo.com